



통권 140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3. 6. 15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하늘나라에는 미군이 없기를-



두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의 추모 1주기를 맞아 시청앞은 다시금 촛불의 바다로 일렁였다. 촛불의 힘은 국민의 힘이다. 촛불의 힘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를 드리울수 있다. 오늘 이후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사진제공 / 6·13 인터넷 공동취재단]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 달의 시 하재광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 5 / 출소장기수 이학천 선생님을 찾아서 원영민 대구양심수후원회 간사 · 6 / 양심수 윤경희님의 어머니를 찾아서 이영기 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의장 · 8 /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윤경희 한 총련10기 의장 대변인 · 10 / 감옥에 보내는 편지 이선아 신입회원 · 11 / 김형주 님 면회를 다녀와서 손준혁 전 한총련 6기 의장 · 12 / 산행기 하영옥 출소양심수 · 13 / 회원교육강좌 보고 이현진 회원 · 15 / 특집 '11기 한총련 출범식' · 16 / 진달래 꽃잎은 피고 지고 이득형 회원 · 18 / 슬픈 일이 있었어요 · 20 / 시사만화 · 21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2 / 재정보고 · 31 / 회비납부 · 3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중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u.or.kr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앞당기고 미·일의 전쟁책동 민족공조로 분쇄하자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통일 천천히 돼도 좋다」

(노무현대통령 일본국민과의 대화에서 / 중앙일보)

「북핵문제 대화와 압력병행」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 중앙일보)

「미, 한국에 신무기 구매요청」

(한겨레)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선제공격대비」

(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조치'와 미·일정상회담에서의 '강경조치'를 재확인하고 돌아오던 날 아침신문들이 보도한 1면 머리글 제목들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의 이정표로 온 겨레가 환영하고 열광했으며 온 세계가 박수를 보냈던 6·15공동선언 3돌을 맞고 있는 오늘, 이른바 참여정부의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불투명성과 함께 미·일의 선택적 북핵제재에 따른 전쟁의 먹구름이 조국반도 위에 드리우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남·북 사이에 반목과 대결을 지양하고 사상·이념·체제와 정견의 차이를 넘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고 하였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민족끼리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체제 강화로 빛바래지고 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족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지향에 대해 우려와 배신감마저 갖고 있다. 낡은 정치형태를 뜯어고치고 남·북 사이에 교류·협력정책을 이어가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한 말은 어느 사이 온데간데없고 온 세계의 정의와 양심세력으로부터 규탄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 군사침략주의에 주저 없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과연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행하려 하는지 그 의구심은 취임사에서부터 드러났었다. 바로 대통령 취임사에서 6·15공동선언이란 말 자체가 없었고 교류·협력정책의 구체적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미군장갑차에 억울하게 깔려 죽임을 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행진을 막아섰고 미국의 배후조정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부추기고 있던 이른바 대북송금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 80% 이상이 그리고 온 세계의 양심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을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평소 말해왔던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내팽개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노골적인 외세의존 정책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진 찍기 위해서 미국에 가진 않겠다.", "할 말은 하겠다."라 했었고 당선 뒤에도 "미국에 안가면 반미주의냐. 반미면 어쩌냐?"고 했으며 특히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의를 깨게 했던 "북·미간 전쟁이 일어나면 말리겠다."라고 하는 등 민족적 입장에서 그리고 주권국가의 지도자로서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 의지가 돋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세상이 깜짝놀라게 변하고 있었다. 5월 11일 미국에 가고 있는 기내 기자회견담회에서는 "북한 핵은 용납될 수 없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5월 13일 미국 '코리아 소사이터티' 연설에서는 "53년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 모른다."고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다. 또한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옵션을 열어두는 게 협상에 유용한 카드는 인식에 동의한다."고 못할 말을 함부로 했다. 그리고 마침

내 5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해 양국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힘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함으로써 주한 미군의 첨단 살상무기 재배권(전력증강)과 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하면서도 미국에 의한 ‘악의 축’ 발언이나 ‘핵 선제공격’ 등 미국의 패권주의 군사주의 침략야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중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 같은 굴욕적 대미 종속적 정상회담이 있는 뒤 조국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정세는 급격히 전쟁분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미국은 퍼놓고 식민지 종속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대량살상첨단무기의 추가배치를 선언했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과 대량살상무기 강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령부의 공동보도 자료를 통해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110억 달러(14조원)를 들여 주한미군에 초고속수송선(MSV), 무인정찰기(UAV)등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력증강 내역에는 정보수집능력 향상, 개량된 정밀탄약 증가, 최신 신속 기동여단(스트리커부대)의 일부 순환배치, 미육군 사전배치, 비축물자의 추가 등이 포함되고 있다. 구체적인 첨단살상무기와 장비로는 초고속수송선, 육군전투지역 정찰활동 강화를 위한 무인정찰기, 육군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는데 사용될 바퀴식 장갑차, 개량된 패트리엇 미사일(PAC-3), 기존폭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합동 정밀 직격 포탄 키트(JDAM), 최신공격용 헬리콥터 ‘아파치·롱보’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3년동안 전력증강투자 14조원은 올해 남측 정부의 국방예산 17조 4천억원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부시 행정부 안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월포워츠 미 국방부 장관은 6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 위원들에게 주한미군이 150개 항목의 전력증강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국방비를 훨씬 더 늘려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었다. 일개 국방부 장관이 남의 나라 국방비를 늘리라고 강압하는 행위와 우리 정부와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발표하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고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미국의 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잇단 망발, ‘악의 축’, ‘핵 선제공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이어 다시 이 땅에서 핵 선제공격을 하려 발광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용산기지 재배치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미2사단의 후방배치에 대해서는 유보한다고 했었지만 그 말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럼스펠트 미국방장관은 재배치(미2사단)의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지난 5일 국방부에서 이를 동안 있었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약’ 2차 회의에서는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을 두 단계로 나누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내용이 무색하게 되었다. 리언 러포트 사령관은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오산 미군기지와 험프리기지로 이전기로 한국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군병력의 한강이남 재배치계획은 미국의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무관치 않다. 이미 언론보도들은 미국이 이북을 공격했을 때 이북의 장사정포와 각종 탄도미사일 사정권에서 멀어지기 위함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미 개량형 아파치·롱보 20기를 들여왔으며 이달 안으로 최신형 패트리엇(PAC-3) 300발을 추가배치하기로 했다(기존의 600발에서 900발로 늘어남). 또한 지난 5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993년 TNT 5000톤 미만의 폭발력을 갖는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한 ‘스트레트-퍼스 수정안’의 폐지조항을 포함하여 국방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보다 6배 이상 되는 폭발력을 가진

수십 킬로톤-메가톤급 지하병커 폭파용 수소폭탄 개발 비용 1,550만 달러와 핵무기 연구비용 600만 달러, 네 바다 핵실험장 보수비용 2,500만 달러도 반영시켰다. 이렇게 미국은 이른바 북핵을 빌미로 핵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이북의 지도부를 겨냥한 표적공격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세계 유일 초강국 미국은 영구히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면서 경제적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남에 국한하지 않고 조국반도 전체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야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주의·패권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만 보더라도 1945년 이 땅을 분할점령, 영구분단의 음모를 비롯하여 1954년 이란 모사 데오정권 전복과 과테말라의 아르벨스정권 전복,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 1965년 베트남 침공과 인도네시아 군사쿠데타 지원, 도미니카공화국 전복, 1973년 칠레 아옌데정권 전복, 1981년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지원, 1987년 파나마 침공, 1991년 이라크 침략전쟁, 1993년 소말리아 내전개입, 1999년 세르비아 공습,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 등 대략만 들어봐도 가히 현대판 해적행위를 다 했었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주의 침략전쟁을 뒷받침 하기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판매, 저장,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미 상·하의원 군사위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91억 달러, 새 군함 구입비 66억 달러, 통합공격기 개발 44억 달러 등을 포함한 4005억 달러 규모의 2004회계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 세계 인류의 적이며 평화의 적은 미국에 제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충실한 사냥개 일본이 옛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은 철저하게 미국의 조종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951년 미·일 안보조약에 이어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었고 1960년 미·일 신안보 조약, 1999년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제정 등으로 미군의 군사행동을 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날에 유사법제관련 3개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

시켰다. 무례와 야만행위의 극치였다.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유사법제는 분명히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소산이고 군사대국화로 가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뿐만 아니라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헌법개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바로 육·해·공군 및 기타병력보유, 집단적 자위권행사, 일왕(日王)을 원수(元帥)로 규정하는 등 옛 군국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이지스함, 공중조기경보기,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종용에 따라 미사일방어(MD)체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선을 검색하고 출항금지를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무시 행정부가 조·미 제네바 협정과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휴지화 했듯이 조·일 평양선언을 외면하는 파렴치하고 비굴한 행패를 자행하고 있다. 미·일의 이른바 '선택적 북핵제재'를 이 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미·일의 이 같은 전쟁책동은 정부의 자주·평화 지향에 대한 분명치 못한 태도도 한몫을 하게 했다.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미국의 '악의 축', '핵 선제공격' 철회를 주장했어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 주권국가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남의 땅에다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데 더욱 개탄할 일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국방비를 GDP 대비 3.4% 높은 5조 5천억원을 증액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한·미·일 공조체제 대신 민족공조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야 할 것이며 전시군사지휘권을 환수하고 살인무기장매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따라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토대를 쌓고 민족공조로 미·일의 전쟁책동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48

어제와 오늘

하재광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반세기 전, 총과 탱크가 육지를 갈라놓더니,
이제는 덤프와 삼질이 바다를 가른다

어제는 민족의 제단을 시뻘건 지뢰로 채우더니,
오늘은 갯벌의 제단을 회쭈연 돌멩이로 채운다

바다와 육지를 갈마들며*,
어머니를 빼앗은 자들은, 나를 빼앗고, 태어날 우리를 빼앗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우리는,
비장한 슬픔과 분노를 날개 달아,
바다와 육지의 영(靈)에게 숨죽여 고발하리라!
너울 되어 돌아올 저주받을 그 욕망을!

후기 : 새만금 갯벌이 주인 되는 그 날이 오리라 확신하며, 부족하나마 재 글을 갯벌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감히 드립니다.

* 갈마들다: 번갈아든다(순우리말)



죽어서 재라도 고향 땅을 밟아 보았으면...

원영민 대구양심수후원회 간사

무더운 날씨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던 일요일 오후, 출소 장기수 이학천 선생님께서 후원회 사무실로 찾아와 주셨다. 사실 지난 달 소식지에 선생님의 취재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바람을 쐬러 대구를 떠나 계실 때라 취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달에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이었다.

전날 선생님과 오후 2시에 후원회 사무실에서 뵙기로 약속을 정했다. 그런데 장기수 선생님들은 항상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하시기 때문에 나도 좀 서둘러 한 30분 정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선생님보다 늦게 와 버렸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침부터 서두르셨을 선생님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선생님은 1928년 2월 25일, 평안북도 용천(압록강 하구)에서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셨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다. 특히 항일 운동을 하셨던 큰 형님에 대한 기억은 남달랐다. 항상 경찰들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고, 이들의 눈을 피해 큰 형님에게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형님과 약속된 장소인 외가 친척 댁을 오가고 저 멀리 만주까지도 갔다 오곤 하셨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선생님은 농민으로 해방을 맞이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향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5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선생님은 7월 초순경에 의무병 교육을 받고 의무 부대의 일원으로 23살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오시게 된다. 이것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모르신 채...

선생님이 소속된 부대는 의무부대라 항상 환자들을



돌보셨다. 그런데 의무병이라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변변한 약이 제대로 없어서 선생님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다. 그렇게 의무병으로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셨던 선생님은 부대가 후퇴하게 되어 전라남도과 북도의 경계지대인 가마골이라는 야산지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중환자들을 보살피며 몇 개월 간 생활을 하셨다.

그러던 중 51년 여름, 비트가 발각되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검거되었지만 선생님과 몇몇 분은 다행히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먼저 검거된 사람들에게 의해 다른 비트마저 발각되어서 선생님도 바로 체포되고 말았다. 검거 당시 다섯 분이 함께 체포되었는데 그중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셨다고 한다. 걸을 수 없어 데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쯤은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당시를 회상하시며 선생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검거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귀를 잘라 갔다는 것이다. 자기가 몇 명을 죽였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지시했는지 선생님은 아직도 분노해 하셨다.

이렇게 체포되신 선생님은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시다가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정규군 의무병임에도 전시포로로 취급되지 않고 유격대로 둔갑되어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렇게 옥살이를 시작하신 선생님은 4·19 때 잔형의 1/5이 감형되어 69년에 출소하시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선생님의 감옥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77년 다시 구속이 되었다. 출소 이후 힘들게 살아오신 선생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또다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감옥으로 가신 것이다.

두 번째 구속 때는 그나마 예전보다 식사나 생활이 많이 좋았었다는 선생님은 목수 기술이 있어서 김천 소년 형무소에서 기술을 가르치며 생활을 하시다 81년에 출소를 하셨다.

두 번의 구속으로 약 24년간을 감옥에서 보내고서야 선생님은 자유로운 몸이 되셨다. 선생님의 나이 쉰이 넘으신 후였다. 81년 출소 이후 남쪽에 혈육뿐만이 아니라 연고가 전혀 없었던 선생님은 갯생보호소에서 1년 정도 생활하셨다. 이후 목수생활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작년까지는 칠곡의 농촌진흥원에서 트랙터 등 여러 농기계를 물면서 진흥원의 여러 일을 도맡아 하셨다. 현재는 나이가 많으셔서 농촌진흥원 일은 쉬고 계시고 낚시를 좋아하셔서 소일 삼아 이곳저곳으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낚시를 다니시곤 한다. 그리고 김종하 선생님의 소개로 약 10년전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나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시며 생활하고 계신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다리가 많이 편찮으시고 오른손에 마비 증상도 있어서 할머니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상전향을 하셨던 아니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64년경의 일이다. 선생님은 축농증에 걸려 입안까지 고름이 차고 이빨사이로 고름이 흘러

내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치료만 하면 금세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측에서는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선생님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위 분들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전향을 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작년 2월 6일 '출소 장기수 전향 무효 선언 및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복으로 송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4남 4녀의 8형제 중 넷째인 선생님은 살아서 꼭 형제, 친척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재라도 복으로 갈 수 있게 서해바다에 뿌려 달라고 하셨다. 죽어서라도 돌아가시고 싶다고...

짧은 시간 선생님과 만났지만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2000년 민족사적 쾌거인 6.15 공동선언의 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하루 빨리 선생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살아생전에 그리운 형제, 친척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보실 수 있게 장기수 선생님들의 2차 송환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모두가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날까지

고선주 양심수후원회 회원

네 이스 반대 투쟁, 한총련 합법화 투쟁, 양심수 석방 투쟁, 민주노조 투쟁, 인권 투쟁, 굴욕외교 반대 투쟁, 반전 반미 투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부당함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바뀌지 않나요?! 왜 정부는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에 좌절감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역사가 흐른다는 것조차 의심이 날때도 있었습니다. 어제 참석했던 토

론회에서도 민족공조여 통일여 평화여 외치는 친구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지 않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성적을 쫓아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에 정말 왜 저렇게 모를까하는 원망을 던지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새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앞으로도 나아질거고, 이렇게 싸우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거고 함께 어깨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엔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할 벗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날까지...

고선주 님은 통영여고 2학년 재학중인 청소년 회원이며, 이 글은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내 마음을 담으려고 다니지요

이영기 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의장

대구에서 하양까지 가는 길은 금호강을 따라서 철길과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져 참 아름다운 길이다. 대구 동촌에 자리 잡은 대단위 공군비행장을 빼놓으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아름다운 나의 고향이라고 자랑 할만하다. 그 길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경희는 꼬박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재수 시절 다녔다. 그리고 삼수시절 한번씩 대구에서 하양집으로 다녔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가끔 고향을 올 때 다녔다. 황금 같은 청춘의 길에서 경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차창 넘어 철길이며 산과 강, 그리고 들을 보았을까?



제를 또다시 어른이 해준 숙제로 오해한 선생님에게 혼이 나자 6시간을 울었다. 하고 싶은 것은 감추지 못하고 일기에 꼬박꼬박 쓴 아이 경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며 힘들어하던 시기 어머니는 혹 경희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지 않을까 꼬박 1년을 한방에서 같이 잠자리에 함께 했다. 그런 경희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김천에 봉사활동(농활)도 자주 오고, 많이

생각하고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모습을 어머니는 느꼈다고 한다.

경희가 집안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리려고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묻어 나온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오기 전 2001년 10월 학교 앞에서 만난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사회에 진출하면 전공은 살리지만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양은 종합대학만 해도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경일대학교가 있는 꽤 큰 읍 소재지이다. 거기 어린 시절과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고향, 거기 하양성당 앞에 경희의 고향집이 있다. 고향에는 청과물 도매를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양심수후원회’, 평생을 살아도 거절하기 힘든 나는 그 고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찻집에서 후원회 소식지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란을 채우기 위해 전국연합 회의에서 두세번 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경희를 생각하면서 단아한 모습의 경희 어머니를 만났다.

28살과 31살에 결혼해서 본 첫 아이 용띠딸 경희는 어머니 이야기로는 아는 스님이 이렇게 좋은 사주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사주가 그렇게 좋았단다. 늦게 본 아이라서 그럴까 한번도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시지 않았던 아빠,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숙제는 다하고 그림을 아빠에게 그려 달라고 조르던 경희는 아빠가 그려준 숙제로 선생님에게 혼이 나고 또 다시 엄마에게 혼이 난 다음에 자기 손으로 그려간 숙

그래서 일까, 경희가 구속되고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너무 담담하게 받아서, 경찰은 몇 번이고 확인 전화를 했단다. 주위의 친지들이 경희의 구속이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오히려 좋아 졌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경희가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혹 방학 때 집에 왔다가 대구 지하철 사고에 경희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라고 말한단다.

자식의 구속이 어머니를 강하게 한 것일까. 경희의 구속이후 어머니는 딸의 석방을 위해서 서울로 대구로 다니신다. 그리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면서 이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알아야만 경희처럼 또 다른 아이가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에서 모르는 것은 물론 한다. 어쩌면 경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님은 오래 전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절에 다니신다고 한다. 왜 다니시냐는 물음에 어머니는 내 마음을 닦으려고 다닌다고 하신다.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과 내 가정과 자신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지난 1월 8일 경희의 구속소식을 듣고도 아직 한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아니 못 갔다. 경희가 원망스럽고 미워서가 아니다. 그것은 딸 앞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오랫동안 고생한 치아 때문에 남들과 어울리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무엇보다 강한 부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경희가 수배로 생활 할 때 어느 정보과 형사가 경희를 잡게 해주면 자기는 특진을 하고 몇천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개수작을 부렸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던지...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경희를 가장 크게 믿고 있다고 어머니는 이야기 하신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경희 아버지는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희가 보내오는 편지 곳곳에는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묻어 있다.

성실하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자식, 그러면서 부모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나 집안 식구 모두 경희가 잘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동생 태호도 누나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가도록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누나에 대한 속 깊은 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비록 경희가 영

어의 몸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하신다. 그렇게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양심수 딸과 누나를 믿는 동생과 부모님은 어느새 하나가 되고 있었다.

경희는 지난 5월에 1심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서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 기대가 무너지면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나는 어머니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1년6월 다 살고 나온다고 생각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속편하지요." 하신다.

밥을 먹고 가라면서 잡는 경희 어머니를 뒤로하면서 오는 길, 경희가 다닌 하양여고의 교훈이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참되게 배우고 착하게 행하며 아름답게 살자'

28살 청춘은 그렇게 그 교훈 따라서 살고자 한 것 같다.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이 아름다운 조국의 내일을 위해 그는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이 조국은 여전히 그런 아름다운 청춘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가족들을 피눈물 나게 한다.

경희가 빨리 대구와 하양을 가로지르는 이 길, 철길과 산과 들 그리고 강이 흐르는 이 길을 달려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를 소망한다. 또한 경희가 훗날 양심수 후원회에서 "이거 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소망한다.

이영기님은 1994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하고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98년에 출소하여, 현재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국경복연합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국이 부를때

안녕하세요, 이우경 선배님.

격렬한 운동 뒤 얻은 새 기운으로 답장을 씁니다.

오랫동안 여름이에요. 내리쬐는 햇볕에 몽땅해진 제 그림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마구 달렸습니다. 1심 선고 후 줄곧 25바퀴씩 뛰고 있어요.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죠. 말로만 듣던 징역의 여름을 온 몸으로 맞서려고 해요. 단식을 하던 독기로 추운 줄도 몰랐던 지난 1월의 각오라면 충분히 이기리라고 봅니다.

선배님이 노래패 출신이라서 무척 부러운걸요. 전 노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 부르는 것 무지 좋아해서 언제나 흥얼거리죠. 오죽하면 한총련 출범식장에서 결의를 밝히며 노래를 불렀겠어요.

조국이 부를 때 그대는 과연 서슴없이 떨쳐 일어나/
조국이 부르는 혁명의 길도 달려갈 준비가 되었는가/
때로는 나만을 위한 안락의 날을 꿈꾸었소/ 그러나 그
날에도 조국은 싸우고 있었네/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
냐고 우리 온 밤을 새워 물었지/ 벗이여 우리는 알고
있잖나 조국에 바친 삶이라는 걸/ 밀림을 헤쳐 걸으며
오직 한별을 우리르던/ 그날의 전사들의 피 나의 가슴
을 두드리네/ 조국이 부를 때 나는 가리다 그 길은 참
된 영광의 길/ 최후의 순간도 당당하게 조국을 위해
불사르리라.

‘조국이 부를 때’는 작년 강원도서 제주도까지 가는 곳곳에서 마주한 동지들에게 제가 불러 준 노래예요. 바로 출범식장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이곳에서도 가장 자주 부르는 곡이죠. 아침이면 찬송가 소리 틈으로 늘 부르니까 가끔은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이곳이 전라도 끝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0.95평 독방, 국가보안법 위반 241번. 싸우지 않고 얻

어지는 자유는 없다고 분노로 밤을 패며 칼을 가는 시간들이지만, 창살 매단 옥면 공간서 별도 또렷이 볼 수 없는 건 좀 가혹하단 생각이 들죠. 매캐하니 붉은 수도권의 하늘에다 한총련의 이상을 그려볼라치면, 간혹 눈가에 차 오르는 열기를 참아주기 힘들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단 하루도 별을 찾지 못한 날은 없었다는 거예요. 뚫어져라, 정말 뚫어져라 올려다보면, 은근히 고개 드는 별을 찾지 마련이죠. 뜻이 보인답니다. 그땐, 깊은 곳 숨은 듯이 있던 제 의지도 얼굴을 내밀구요.

하루하루 새로워지려고 해요. 블록하니 돌아난 연두 잎이 질푸러져 풍성해진 오늘, 그리고 가지 뻗고 열매 맺을 내일, 이들 못지 않게 성숙할 저인 줄을 굳게 믿으려구요. 비록 손발 묶여 이렇게 기가 막힌채이지만, 조국의 미래까지 삼키려는 자들을 향한 분노는 커지기만 한걸요. 선배님 같은 소중한 분들 덕분에 더욱 그럴 겁니다.

‘한총련’—백 번 불러도 벽차기만 한 이 이름 앞에, 언제나 당당 할겁니다. 저는 지금, 선배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2003. 5. 28

서울구치소에서 윤경희

추신: 권오현 선생님과 양심수후원회를 정성으로 꾸려가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기쁘구요. 부족한 글이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후원회 소식지를 통해 한총련 양심수들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우경 선배님과의 인연도 감사하구요.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더욱 열심히 싸워가겠습니다.

윤경희님은 한총련 10기 의장 대변인, 한총련 10기 의장 권한대행으로 인해 지난 1월 구속되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희망새

제민씨, 편지 왔어요.

어디서부터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무척이나 망설여지는군요. 소시적 그 잘 쓰던 연애편지 한 가닥도 실마리로 떠오르질 않네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점점 염천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건강상태가 어떤지 매우 염려됩니다. 부디 더 악화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이쯤에서 이 낯모를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마음만은 스무 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서른이 된,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는 93년에 들어갔고요.

내가 제민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97학번이고, 서총련 의장을 했었고, 안과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고, 다리도 아직 다 나은 것 같지 않고, 덩치가 크고, 마음이 착할 것 같고...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접한 제민씨 연행 소식은 뜻밖이었던 만큼 답답했고, 가슴이 꼭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수배, 구속, 투옥 같은 단어가 언제나 꿰일 날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청춘을 유린 당하는 젊음이 있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기개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제민씨군요. 지금 제민씨가 겪고 있을 몸 고생 마음고생에 대해서 내가 어찌 만분일이나 짐작할 수 있겠나요. 내 동생이 제민씨하고 동갑이니 그냥 동네 누나거니 생각하고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으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구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민씨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저 괴로운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때, 고려대에서 있었던 1기 한총련 출범식을 기억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8만의

인과 속에서 학생회가 뭔지도 잘 모르던 어리버리 새 내기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슬며시 웃게 됩니다.

이거 편지가 아니라 무슨 옛날이야기 같네요. 정말 옛일이 되어버린 소망 한 가지만 말해 볼게요. <희망새>가 되는 것이 일학년 때 가장 큰 희망사항이었는데, 그 결과는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끝내 '절망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만이 따라다니더군요. 게다가 <김귀정 추모가요제>에 혼자 나갔다가 문과대 예선에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그 다음해에는 후배들 끌고 나갔다가 또 떨어지고. 하하하 끝내주지요? 그렇지만 겁 내지 않고 일단 저질러봤던 지난 날의 기억이, 매일 좌절하고 매일 다시 태어나던 그 미숙한 열정이 지금까지 나를 밀어가고 있습니다.

제민씨,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에서는 흐린 날임에도 새소리가 청명합니다. 어두워지면 그들도 돌아갈 제집이 있겠지요. 요즘 들어서 점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될까 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늘 스스로에게 당부합니다.

언제 한 번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고,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우리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강이 앞 물을 밀어 대하로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눈밭을 걷는 사람처럼 용감하게 굳세게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제민씨도, 그리고 나도.

6월 11일 이선아

이선아 님은 현재 성균관대 대학원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 주신 신입회원입니다. 박제민 님은 2000년 경기도 총학생회장장과 서총련 의장으로 4년차 수배 중 지난 4월 연행, 구속되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6·15 공동선언 3돌을 맞이하며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를 생각합니다

손준혁 회원 · 전 한총련 6기 의장

며칠 있으면 분단 민족사를 가르며 통일의 오작교가 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3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분단 반세기 동안에 조국의 혈맥이 갈라지고 내 형제, 내 동포가 헤어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이 얼마이며 찢겨진 가슴이 얼마인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원한과 통곡의 분단사를 끝내고 통일시대의 서막을 열어놓았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어 남북해협의 칠천만 동포는 만남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지금,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고 우리 민족이 힘을 모아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첩경은 6·15 공동선언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창살 너머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후배를 만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참 남다른 만남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양심수가 모두 석방될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 창살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손바닥을 마주대어 보기도 하고... 안타까움 달래려 했지만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뿌연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열혈 청년을 가두어둔 아픔과 그러나 마음과 정신까지는 가둘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나 할까요? 양심과 신념은 창살로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은 어떠냐고, 그간 고생이 많았다고, 바깥 세상에 적응은 잘 되냐고 연거푸 질문을 던지는 게... 징역 살면서도 동지를 걱정만 앞세워서야...

권오현 선생님이 10기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엄하게 규탄하실 때도 고개 끄덕이며 묵묵히 듣고만 있더니 11기 한총련 출범식, 5월 대학생축전 얘기가 나오니 활기가 가득 하였습니다. 한총련 10주년을 맞는

올해에 한총련의 투쟁역사를 잘 총화하고 새 세기에 맞는 학생운동, 한총련 운동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절절한 바램을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6.13 반미·반전 촛불대행진과 6·15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끄떡없이 이행되면 국가보안법도 힘을 잃고 철폐될 것이며 감옥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도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 그렇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면 자주통일은 머지 않았다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초소에 선 듯한 치열함과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김형주 의장의 모습을 보며 이제 막 감옥 문을 열고 세상 앞에 선 사람으로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다녀와서 얼마 후, 다른 후배를 통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주 의장 아버님께서 건강이 몹시 좋지 못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얼마 사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면회를 갔을 때 김형주 의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아버지를 잃은 저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조건과 고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총련 의장이었던 사람으로서의 용기와 의지를 지켜가고 있는 한 후배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6·15 공동선언 3돌을 맞아 통일대축전을 코앞에 두고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김형주 의장을 떠올리면 한총련 청년학생들의 고난은 계속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가슴이 아련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6·15 공동선언 3돌을 맞아 모든 양심수가 조건 없이 석방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상권 교수님의 **큰 힘**을 듣고...

하영옥 출소양심수

혁춘이를 데리고 일산에서 출발하는데 이미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미리 권오현 선생님께 비가와도 산행 있는지 여쭙어 보았는데,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산행은 한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둘째 딸 혁춘이가 비를 맞고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우비를 입히고 걷게 했더니 신나게 잘 따라와 주었다. 혁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7살 애기 모습을 보여 등산 일정을 망가뜨릴까봐 불안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배려와 혁춘이의 밝은 모습으로 기우에 그치게 되었다. 혁춘이는 나에게 매달려 과격할 정도로 까불대었지만 전체 분위기를 흐리지는 않았다. 제법 험한 길을 열심히 따라와 주었고 많은 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하며 오히려 격려해 주는 속에서 무난히 등산을 마치고 내려 올 수 있었다.

빗속에서 관악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 나에게겐 각별한 것이었다. 관악산은 과거에도 많이 오르내렸지만 이렇게 석방자의 신분이 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특히 장기수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 관악산을 오르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도 묵묵히 보이지 않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고 면목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련을 딛고 이렇게 후원회분들과 같이 걷게 되었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예정된 목적지(선생님들이 명명하시기를 코끼리 바위)에 이르러 가는 비를 맞으며 내려다 보는 경치 또한 일품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자기 소개하기 위해 자리 잡은 곳은 묘한 곳이었다. 둥그런 터에 벽 안쪽으로 칸막이가 쳐진 곳이었는데

데 자칫하면 머리를 부딪치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 인사 소개가 있었다. 양심수 후원회의 활동 덕에 석방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양심수 후원회 분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징역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스스로 알고들 계실까? 그 고마움을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다. 특히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이 징역사는 당사자에게 정말 무한히 큰 힘이 된다.

내려와 후원회 회원이신 분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가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안학섭 선생님께서 사모님을 자전거에 태우고 나타나셨다. 보기에 너무 좋았지만 사실 사모님께서 몸이 무척 좋지 않으셨다. 산행도 포기하실 정도로... 사정을 아무 것도 모른다 보니 뭔가 드릴 말씀도 없고 마음만 무겁고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뒤풀이 식당에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신다. 선생님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만 도시락 싸간 찬함을 두고 와버렸다. 아, 혼나겠는데!

6·15 공동선언 뜻을 맞이하며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다. 나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혹시 그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으려나? 언젠가 다시 찾아가 보리라 생각한다.

식사 때 선생님들께 술을 올리려 했는데, 선생님들 대부분이 술은 거의 드시지 않았다. 술이 무슨 대수라 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싸했다. 선생님들께서는 안학섭 선생님 댁으로 다들 가시고, 함께 가고 싶은 마

음을 애써 누르며 해야 될 이야기를 위해 권오현 선생님을 따라간다. 이창희가 함께 한다.

당면한 이석기 석방투쟁과 관련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사실 이석기 석방투쟁의 과제가 남아있는 까닭에 언제나 숙제 못한 학생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이 산행을 이석기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와 함께 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어본다.

“이석기를 팔순 노모 곁으로!”



알립니다

정정합니다

5월 소식지의 회비 입금분 중 김시현님으로 200,000원이 입금 처리 되었으나 김시천님을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정정합니다. 또한 김시천 선생님은 90년대 초반 음식통감시룡이 충북 제천, 단양 수물지역 기행시 안내를 해주셨던 강사 선생님이요, 최근 후원회 김호현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주)창미디어에서 발행 작업을 하는 '운문지'에 외부 원고를 써주시고 원고료로 받으신 200,000원을 양심수후원회의 활동비로 써달라며 보내오셨습니다. 5월호에 정확한 이름과 사연을 정리해 드렸어야 함에도 사정으로 인하여 누락시킨 점에 대하여 김시천 선생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시천선생님 약력 ●

1956년 청주생. 1987 <분단시대>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작품활동 시작. 현재 민족문학 작가회의 회원이며, 충북 영동군 황간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시집으로는 <청풍에 실린 나무>(1990), <떠나는 것이 어찌 아름답기만 하랴>(1995), <마침내 그리운 하늘에 별이 될 때까지>(1998) 등 다수가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평불협 법타 스님께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에 써 달라며 분에 넘치는 성금 1,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혁당 사건으로 20년 옥고를 치루고 나오신 신광현 선생님께서 용돈을 모아 양심수들에게 보내달라고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신 김영옥 선생님께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심수후원회를 격려하시면서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결같은 큰 성원을 해주시는 성경화 회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한 상권 교수님의 한국 전쟁 강의를 듣고...

이현진 양심수후원회 회원 · 마들주민회 회원

왜지 오늘은 꼭 이곳에 와서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다.

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일요일이다 보니 가족하고 보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강박관념(?) 때문에 미루고 미뤄 마침내 이번 주 일요일에는 큰맘을 먹고 참석을 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은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기본이라 생각은 했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었다. 그런데 이 날 내 속에서 꿈꿨고 있었던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한상권 교수님의 한국전쟁에 대한 강의였다.

한국전쟁에 대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역시나 왜곡된 역사였다. 한 선생님의 확신에 찬 강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마구마구 아우성 치는 것 같았다.

한국전쟁...

전쟁의 인적 물적 피해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이러한 참혹을 자행한 인간들이 아직도 떳떳하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고 있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3개월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3년을 끌면서 이 땅에 남긴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분단이다. 민족의 분단...

이날 강의에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었다.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좌익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와 반공 이데올로기

였고, 또 전쟁에 의해 죽은 민간인 보다 양민 학살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민간인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다가오는 6·25에는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 당시 죽었던 양민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6월 25일에는 항시 모든 매체에서 '무찌르자, 공산당' 을 방영 했었으니까...

강의 후에 들은, 전쟁의 산 증인이신 출소 장기수 어르신 분들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그분들을 빨갱이라 매도하고, 왜곡된 역사를 자꾸 인식시키고 교육시킨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다시금 분노를 느꼈다.

한국전쟁 후 50년이 흐른 지금도 이라크는 미국의 전쟁광들에 의해 전쟁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한반도 땅에 또 다시 무력을 행사하려하는 미국을 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올바른 역사관이 더욱더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평화통일이라는 큰 과제가 이 땅에 하루 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역사다’ - 11기 한총련 출범식

1만여명 집결 서울 연세대에서 성대히 개최

백영순 유뉴스 기자(www.unews.co.kr)

“후배들과 행사에 참가해보니 부드럽고 문화적인 행사더라. 젊음의 싱그러움이 국민들에게 스며든 ‘창문을 연’ 행사여서 좋았다. 전 국민들에게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학생운동의 대 선배이자 집권여당에 속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번 출범식을 방문한 뒤

내비친 소감이다. 이렇듯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 11기 한총련 출범식을 겸한 5월 축전은 분명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번 5월 축전에는 전대협 선배들의 힘이 돼 따뜻한 복돋움이 있었고, 수배해제-합법화를 바라는 정치수배자 가족들의 애절한 바람이 있었고, 학생운동 단체인 연대가, 생기발랄한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이 쏟아지는 장이었다.

광주 5·18묘역시위로 인해 급물살을 타던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잠시 주춤하던 때 열린 이번 5월축전은 그래서인지 쏠린 눈과 귀가 무척이나 많았다. 언론의 관심도 대단했다. 2박 3일간 연세대 교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쫓아가보자.

전대협-한총련이 함께 부른 희망의 노래

한국학생운동의 맥, 전대협-한총련이 만났다. 11기 한총련은 그들의 뿌리인 전대협 선배들을 초청해 자축 생일상을 차렸다. 후배들의 초청에 선배들은 흔쾌히 응했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제 1기 전대



협 의장, 전대협 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해 1만 여명의 후배들과 생일상을 맞았다. 80년대를 노래로 운동했던 선배들은 노래모임 ‘아줌마’로 부활해 후배들 만났고, 이인영(현 민주당 구로갑 지구당위원장) 전대협 1기 의장은 편지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공, 과에 대한 평가를

잠시 미뤄두더라도 한총련은 이제 그 자체로도 하나의 역사가 됐다. 운동은 언제나 탄압을 뚫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한총련의 역사에 깊은 골이 있기도 했지만 숨고르며 달려온 역사가 있기에 장대한 산맥을 이룰 것을 믿는다. 여러분의 도전과 창조를 믿기에 선배들은 항상 함께 하겠다”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러한 선배들의 복돋움에 후배들은 전대협 진군가로 화답하며 한국학생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이어갈 포부를 밝혔다. 으스스한 밤공기였지만 오히려 느껴지는 체온은 훈훈하고 따뜻했다.

한총련의 변화-새 학생운동 만들기 ‘시작’

11기 한총련 의장이 당선되면서 가장 큰 눈길을 끈 공약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소’였다. 정재욱 의장이 밝힌 ‘해소론’은 밀도 끝도 없는 한총련 해체가 아닌 한국학생운동이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약속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학생운동 상설 공동투쟁체 논의에서 확인된다. 전대협-한총련을 뛰어넘는 새로운 학생

운동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선언의 말처럼 한총련이 나서 새로운 시대, 새 학생운동 만들기에 나섰다.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출범식 기간인 지난 31일 광화문에서 학생운동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신자유주의 반대, 미국 반대'를 위한 전국학생투쟁연대(준)를 발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거의 분산적인 투쟁과 단절하고 새 시대 새로운 학생운동에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운동간 연대는 투쟁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부족과 모든 포괄하고 있는 단체가 적은 등 과제가 많지만 펼쳐지는 것발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역사다' -11기 한총련 출범식

1만명이 모인 가운데 11기 한총련이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총련 합법화를 시급히 결단해야 한다(권영길)" "민족공조의 길에서 통일을 위해 언제나 싸울 것을 당부한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위원장)

각계의 격려와 인사가 잇따랐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어엿한 투사가 돼버린 수배자 어머니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고도근시로 고생하며 지난 4월말 구속된 박제민(경기대)군의 어머니는 "대통령이 한총련 합법화를 꼭 하겠다고 해서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을 잡아갔다. 나쁜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잡아가느냐. 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단행해야한다"고 소리 높였다.

새벽 5시를 훌쩍 넘긴 시각,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드디어 정재욱 한총련 의장 추대식이 진행됐다.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한총련을 만들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장이라는 격찬을 받고 있는 정의장은 "한총련 합법화와 대중운동을 위해 설득과 양보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대중의 진심과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며 한총련 내 단결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의장은 '6·13 미선이, 효순이와의 약속' '6·15 공동선언지지 이행' 투쟁을 벌여 한총련다운 투쟁을

벌여 학생운동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어느 때와는 달리 연세대 교정이 떠나갈 정도의 문화축제행사로 들썩였다.

'스무살, 학점 말고도 궁금한 것이 많다'며 개최한 1회 한국대학생 학술제전, 한국대학생 문화제전, 대학생 교류 한마당, 대학생 네티즌 인터넷 동우회 한마당. 물론 늦은 밤샘 행사나 주최측의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행사가 무산되는 등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문화축제행사가 많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꿀볼견도 있었다. 경찰의 태도와 냄비 보도식 언론들의 취재 관행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었다. 경찰은 애초 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기 때문에 11기 한총련 역시 이적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원천봉쇄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은 더구나 '수배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한 연세대 출입을 금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제2의 연대사태를 방불케하는 경찰 지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호언장담만 했을 뿐 실제 별다른 검문검색이나 강도 높은 봉쇄는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한총련 행사를 못마땅하게 보는 일부 보수세력들의 눈짓을 의식해 내린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한총련 중앙의 한 핵심간부는 "일간지 언론들의 경우 제 2의 5·18시위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이른바 건수 잡기에 연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이나 변화하는 한총련 모습에 대한 보도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60 여개 단체들이 발족한 '한국대학생 5월 축전 평화적 개최보장과 언론공정보도를 위한 시민감시단'은 공정치 못한 언론보도를 지탄하기도 했다.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현재로선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이번 출범식이 정부의 결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합법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첨예한 것이 사실이나 젊은 열정을 가뒀서는 안된다는 사실, 이번 출범식 공간에서 확인 한 셈이다. 정부의 합법화 결단을 촉구한다.

진달래 꽃잎은 피고 지고

이득형 양심수후원회 회원



봄별 내리는 날/뜨거운 바람 부는 날/붉은 꽃잎 저 흩
어지고/꽃향기 머무는 날/묘비 없는 죽음에/커다란 이
름 드리오/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이 노래 드리오/사
랑이여 내 사랑이여

—〈오월의 노래 I〉 1절

5·18기념일에 광주에 가자는 ‘양심수후원회’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에는 이 노래의 노랫말이, 가슴속에는 가락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광주는 내게 붉은 꽃빛깔이다. 광주의 5월은 진달래빛 아우성이며 합성이다. 가락을 따라 내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5월 17일, 우리는 정한 시간보다 출발이 늦어 광주에는 밤 10시 반경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전야제 행사가 대부분 끝난 도청 앞 광장에는 23년 전 그날의 포효 같은 열기가 사람들의 틈에 바투 둘러서 있었다. 우리는 어스름 속에서 열기를 헤치다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사람들이다. 그들의 배려로 우리는 조선대 학생회관에 숙소를 마련했다. 이튿날 새벽 3시가 되도록 그들과 우리는 시대의 무게는 나누어 의지를 버리고 시절의 낭만은 모아 내

어 절창과 웃음으로 풀어냈다. 광주골은 역시 예향이다. 밋을 안다. 밋은 한에서 나오지만 한풀이는 아니다. 한에 인간미를 달이면 밋이 된다. 5·18이 이 나라 민주와 통일의 거름이 된 것은 한의 가장 긍정적 승화 때문일 터이다.

5월 18일 오전 9시, 우리는 광주교도소에 있는 양심수와 만남을 가졌다. 양심수 6명은 모두 한총련 학생인데 후원회원들 두셋이 짝을 이뤄 그들을 각각 만났다. 우리와 그들은 의례적인 인사부터 속 깊은 이야기까지 서로 말하는 품새가 오랜 형제간이거나 친구인 듯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무엇이 첫 만남에서 오는 망설임이나 경계심마저 없애고 그토록 허물없이 우리에게 웃음과 친밀함을 나누게 하는 것일까! 그 힘은 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는 자유의 힘인 양심에서….

우리는 11시쯤 망월동으로 향했는데 들머리에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걸어 30여분인 거리를 1시간 30여분 동안 차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나중에 안 일인데 참배객수에 버금가라면 서러워할 수의 경찰이 대통령인 노무현 씨를 보호하겠다고 길을 막아 서 있었던 탓이었다. 미국에서 노무현 씨가 한 부끄러운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던 청년·학생들이 하는 항의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현장에 퍼진 소문에는 노무현 씨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장에 정문으로 들지 못하고 뒷문으로 드나들었다는데 뒷날 언론보도를 듣고 그것은 소문이 아님을 알았다.

우리의 공분도 청년·학생들의 그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지만 5·18은 이 나라 참된 역사의 정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가! 차디찬 역사에서 화톳불로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제 뒷날 오는 이들을 위해 불잉겔이 된 뜨거운 합성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죽대 없는 한 인간의 모자람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잊을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분노는 자연스레 열사에게 보내는 존경과

경배의 마음으로 모아졌다. 우리는 역사로 앞서 간 이름
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 가슴은 뜨겁고
눈빛은 영롱한 회원들의 앳다운 입술 떨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렇듯 봄이 가고/꽃피고 지도록/멀리 오월의 하늘 끝
에/꽃바람 다하도록/해기우는 분숫가에/스뻤던 냇이
살아/양천의 눈매 되뜨는/이 길은 오월이여/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오월의 노래 I〉 2절

참배를 마치고 되돌아 나가는 내 귓전에 다시 노래
가 이어졌다. 한 무리 꽃들도 외친다. 잎 돋는 나무에
게, 꽃피우는 풀들에게 고개 숙인 우리에게 두 손 모아
외친다. “우리 꽃이 되자!”, “우리 빛이 되자!” 외침은
묘지의 이랑 사이사이로 골을 타고 흐른다. 흐르며 한

풀 커진 함성이 된다. “우리 꽃빛이 되자!”

우리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은 뜨거웠고 눈빛은 지나치게 영롱해서 앳다운 입술의
떨림은 파문처럼 커져갔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서로 어깨에 어깨를 걸고 모여
‘욕된 역사 투쟁으로 뚫고 그날이 다시 오도록 우리 가
슴에 붉은 피를 솟구칠 날’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렇
듯 봄이 가고 꽃피고 지도록 머언 먼 하늘 끝에 꽃바람
다하면 스뻤던 냇들 다시 살아, 하늘을 우러르는 눈매
들 다시 살아 이 길은 오월의 끝에 꽃빛을 피울 수 있
을 것인가. 오오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아아 빛고을이
여...

붉은 해가 이윽며 산등성이를 넘고 있었다.

묵연히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붉은 꽃잎이 휘날리고
있었다.



알립니다

7월 산행

7월에는 도봉산에 오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언 제 : 7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도봉산

모이는 곳 : 도봉산 입구 안내판 앞

갓출 것 :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버스 19번 종점

문 의 : 신현익(017-233-2800), 888-4470

한상권교수님의 현대사 강좌



가까운 과거사를 읽으로서

오늘을 알고,

미래를 참되게 개척하고자 합니다.

일 시 : 7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8번출구)

문 의 : 송창학(016-235-3726), 888-4470

김경선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아픔을 안고 자주·통일만을 염원해오던 또 한 분의 장기구급 양심수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8년의 옥고를 치루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원암의 집'에 살고 계셨던 김경선

(81세) 선생님이 가족이 있는 복녘 고향을 끝내 밟지 못한 채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폐렴악화로 2003년 5월 28일 새벽 3시 한 많은 삶을 다하셨습니다.

고 김경선 선생님은 함남 북청군 북청읍 남리에서 부친 김치식 님과 모친 김옥분 님 사이에서 1923년 2월 27일 출생했고, 조국광복 뒤 조선인민군 장교(대위)로 복무하다 제대하여 신포 수산사업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 뒤 조국통일사업 임무를 지고 사업하다가 1960년 7월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28년 옥고 끝에 1987년 전주교도소에서 출감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뒤 전북 완주군에 있는 머리빗 공장에서 4년간, 91년부터는 경북 봉화에서 7년간 가축관리 종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1998년 9월 23일 복지관 '원암의 집'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2001년에는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신청을 하고 복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체포당시 복녘 거주지 강원도 고성군 조곡리에는 부인 정정금(당시 29살), 딸 정남(5살), 아들 승재(3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원암의 집'에서 원생들과 서울, 광주, 전주, 전북지역에서 온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백영규 원장의 주재로 영결예배를 드리고 한상렬 목사의 기도, 강희남 목사의 말씀과 축도, 찬송



으로 1부가 진행 되었으며, 이어 같은 자리에서 '통일 애국인사 김경선 선생 민족통일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민족통일장' 영결식이 열렸다. 양진규 목사의 사회로 민중의례를 한 뒤 옥중 동지인 류낙진 선생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으며, 한상렬 장례위원장의 추도사, 통일광장 임방규 대표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의 조사가 이어졌고, '청보리 사랑'이 조가를 부른 뒤 분향, 헌화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원암의 집'에서 마련한 삼배옷을 입은 통일광장 허영철, 최공식, 김영식, 이성근 선생을 비롯해 전주시에서 성공회 허종현 신부, 전주·완주군 농민회 회원들, 전북 통일연대 하연호 대표, 전주 YMCA 구경희 회장, 이명자 사무국장, 경실련의 심효섭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 원불교 이선조 교무, 고백교회 신도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후 '원암의 집'에서 마련한 꽃상여로 마을을 돌아 가까운 장지까지 운구했으며, 옥중동지들의 애도속에 하관식을 마쳤습니다.

특히 원암의 집에서 한 때 함께 생활했던 김영식 선생님은 고인의 운명 소식을 듣고 서울 '만남의 집'에서 곧바로 달려와 빈소를 지켰으며,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동지의 운명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01 종로5가 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가협 주관으로 4.30사면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이 열렸음. 김대원, 김혜신, 양승종씨 등이 연락이 되지 않아 9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채은아 총무사회로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환영인사, 석방자들의 자기소개와 입장표명 김경환씨가 석방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회견문에서는 이석기씨를 비롯한 남아있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다. 이어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의 4.30일 박제민 2000년 경기대학 총학생회장(서충련의장, 한충련대변인)의 보안수사대 강제연행과 소배경(경남대)학생의 교생실습이 마치는 대로 경찰에서 연행하겠다는 다급한 소식들을 전하며 양심수 사면의 의미에 배치되는 만행을 규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며 임방규 선생님, 진광수 목사님 등 환영말씀 있었음.

▶ 답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70회 목요집회 4.30 석방양심수 환영내용 담아 진행하다. 석방양심수들 인사, 박제민 학생 아버지 박환양씨의 강제연행규탄과 정치수배해제 촉구 발언, 유호근씨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1000여명 사면에서 제외된 것 규탄.

▶ 대학로에서 세계노동절 113돌 기념 전국노동자 대회 40,000노동자 학생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리다. 대회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5일 근무제 도입, 파업관련 손·배 가압류철폐, 노동3권 보장, 경제자유무역과 개방정책 중단, 반전평화 등 주장, 마치고 시청앞 광장까지 행진 문화공연과 정치집회 등.

▶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대통령 출연. 방청객으로 함께한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의 한총련 합법화 등 질문에 답하다. 이적단체로 규정받고 있는 한총련 의장의 대통령과의 질의응답은 앞으로 합법화 관련 긍정적 측면이 있어 주목되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위원장 변정수) 65차 회의를 열고 리영희, 백락청 교수 등 1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4월 30일).

▶ 연대앞 정치수배해제촉구 촛불집회-이봉주, 주경임, 송창학, 김숙희, 김미성, 유선화, 이용준, 심주이 회원 함께.

02 홍사단 강당에서 6·13미선이, 효순이 1주기 추모대회 전국준비위원회 결성회의 및 발족식 열리다. 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가 주최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홍근수 목사 사회로 6·13 미선이 효순이 1주기 추모대회 국민준비위원회 결성의 건, 인선의 건, 사업계획 심의 건, 추모대회에 즈음한 성명서 채택 건 등 심의. 2부순서는 발족식이 있었음.

03 연세대 정문 앞 정치수배가족모임 천막농성장에서 양

심수 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토요캠페인문제, 간사사무인계 문제 등 논의,

▶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치수배자모임과 수배자가족 양심수후원회 김대원 대책위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박제민 구속 규탄과 한총련 합법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집회 열리다.

04~05 옹시룡감시룡 제34차 정기기행 '지리산 너른 품에서 대안의 삶을 꿈꾸며' 주제로 7시 양제역 서초구민 앞에서 50여명 함께 떠나다. 경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장수남원 등 거치는 동안 소개 시간 등을 갖고 남원 광한루 근처에서 점심- 다시 지리산 점령치(1,117m)를 지나 심원 관광농원, 성삼재에 도착 걸어서 노고단(1507m)까지 등반(그러나 시간이 모자라 노고단까지 200m를 남겨두고 출입제한에 묶여 노고단 고개까지만 가다) 바로 13년전 태백산맥때 옹시룡감시룡을 탄생케 했던 곳이었음. 성삼재로 돌아와 버스로 시암재 거쳐 천은사로 내려오다. 깊은 골 높은 산 웅장한 지리산 면면들 보다. 천은사는 신라 흥덕왕3년(828년)덕운도사가 창건,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의 3대 사찰, 극락보전, 약사전등 가람배치 자연조건과 함께 절경-한상권교수의 설명도 듣다. 다시 산동면 국민관광지에, 토담식당에서 저녁식사 뒤 박선영 열사를 기리기 위해 지은 소의제(少義齊)에 도착 오명자 어머니의 반가운 미소를 받음. 이어 한빛 고교교장 김창수 선생님의 '대안교육' 강의 이어 오명자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분에 넘친 음식으로 뜻있고 흥겨운 뒤풀이 시간. 5일 아침 6시 일어나 8시 30분 토담식당에서 아침식사 9시 20분 화엄사로 떠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위치, 백제 성왕(544)때 연기조사가 창건 처음에는 해회당과 대웅상 적광전만 지었으나 그 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에 의해 증축(643년)현강왕(875년)때 다시 증축-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타 1630년(인종8년)에 벽암선사가 7년만인 1636년 다시 건축 오늘에 이름. 각황전 앞 석등(국보 12호) 4사자 3층 석탑(국보35호) 각황전(국보 67호)를 비롯 보물, 문화재와 울벗나무 등 천연기념물 20여종 대가람장관, 여기서도 한상권 교수 설명, 다시 광의면 매표소-천운사-시암재-성삼재-산내면 뱀사골 입구- 뱀사골 답사-(자연관찰로 등) 이어 남원시 대정리 실상사 도착, '작은 학교' 이경재 선생님 설명 듣고 대안학교 이런저런 학습장면 관찰 이어 칠성사 답사-신라 흥덕왕 3년 증각대사가 창건 구산선문의 실상파의 세력이 번창했던 사찰 국보 10호인 화강암 3층 석탑 외 보물 등이 많이 있음. 질문을 들어서자마자 효순이·미선이 영정

추모대 설치 인상적이었음. 답사 마치고 백일식당에서 점심식사 서울로 떠남. 9시 서울도착.

- 06 연세대 정치수배가족농성단 천막 앞에서 한총련 수배자가족 「무기한 단식농성」에 즈음한 수배자가족 기자회견이 있었음. 연세대 부총학생회장 박선태현군의 어머니 선금옥님 사회로 원불교 정상덕 교무님의 박제민군 연행에 대한 인권·종교 청년단체 규탄 성명서 낭독이 있었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이산라군 어머니 김낙희님이, 강금실 장관에게 드리는 글을 김성옥(박제민군 어머니)님이 낭독,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최승재씨 부친 최강복님이 낭독, 이어 김성옥어머니 삭발투쟁과 가족들 단식농성에 들어감.

☞ 박제민군 연행구속과 관련 농성단과 사회단체 대표들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다(대표단 박환양, 김성옥, 김낙희, 조순덕, 권오현). 그러나 경찰청 앞에서 전투경찰에 막혀 몸싸움, 비 맞으며 연좌농성 서부총련 임지훈 의장 사회로 박환양님 성명서 낭독, 권오현 정상덕 교무의 규탄 발언 등.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민변과 계승연대 의문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 공청회를 열다. 제1기 비상임위원이 있었던 이원형 변호사는 발제에서 국정원, 기무사등 관련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에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의문사위원회가 직접 증거를 수렴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 07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민변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 열다. 최병모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백승헌변호사의 사회로 박연철 변호사의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들 강경선 방통대교수의 '하나됨을 위하여' 등 발제에 대해 송영길(민주당), 서상섭(한나라당), 최규업(민노당), 김경수(법무부검찰3과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씨등 토론이 있었음. 대부분 발제, 토론자들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입장이었고 김경수 과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간담회에 나왔다는 의미는 있었음. 방청석에서도 심재환 변호사, 이산라 어머니, 김낙희 어머니,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의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절박성 발언.

☞ 연세대 학생화관에서 밤9시부터 한민족교회에서 주관하는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수배해제를 염원하는 예배를 드린다. (송창학, 주경임, 심주이, 유선화, 김재명, 김민정, 이윤준, 노혁, 안은현, 권오현함께)

☞ 여의도 국회 귀빈식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녹색연합, 여성 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국민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 제지.

- 08 연세대 정문 앞 정치수배자 천막농성장에서 수배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들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음. 연세대 수배 3년째인 김정숙 학생의 사회로 참가자 소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격려말(박경순, 우상호, 권오현)서울산업대 김경진 학생의 부모님께 드리는 글 감사편지 낭독, 수배학생들이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학생들의 문화공연 퍼포먼스 '이상한 나라의 재연이' 박제민군 아버지 박환양님의 대금연주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창희, 송창학, 주경임, 유선화 회원이 함께 했음.

☞ 양심수후원회 집행부에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문상봉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함께 점심식사 했음. 요즘 문상봉 선생님께서서는 다리 관절 등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며 김영식 선생님께서서는 지방나들이를 하시었습니다. 집행부주례모임을 갖고 토요일에 진행방향과 정치수배해제 촉구 촛불시위 참여문제, 후원회 소식 발간 문제 등 논의.

- 09 명동YWCA 4층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각계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손호철 교수 사회로 참석자소개 취지 설명에 이어 김진균 교수 오충일 목사, 오종렬 의장의 인사말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과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가 선언문낭독을 했음.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북미 핵 갈등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단호하고 명백한 합의를 촉구했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화해협력, 평화와 통일에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음.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적 입장에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하며 7천만 겨레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선언.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주최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중지'와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라창순 범남본 의장이 1인시위에 들어가다.

☞ 청와대 입구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여중생살인사건 범대위 주최로 '노무현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자주외교촉구 범국민 SOFA개정안 전달식'을 진행, 오종렬, 김준기, 주종환 대표들에 의해 청와대 시민 사회담당 비서관에게 전달.

오후 8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범청학련후원회 덕성여대 양심수후원회 김대원 대책위, 영남대 민주동문회, 동아대 총학생회 등 공동주최로 4·30 사면 출소자 청년통일 애국인사 김대원, 김해신, 손준혁, 이창호씨 석방환영대회가 열리다. 사진 문화공연에 이어 건국대 부총학생 사회로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의 인사말, 오신분 소개 라창순, 권오현의장 등 환영사, 출소자 4명의 인사말 등이 있었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997년 숨진 김준배 한총련 투쟁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한 이 아무개 경장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데 대해 광주교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되어 지난 6일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음. 진상 규명위는 항고장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의문사 진상 규명위 쪽 목격자 진술은 배척하고 동료경찰관 진술은 받아들이는 편향적 결정을 했다고 반박.

연세대 정문앞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촛불집회 유선화, 송창학, 안나미, 변의숙, 김숙희, 김범용 회원 함께 함.

10 종묘공원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공동주최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전쟁공조 한·미 동맹반대 경제 개방 압력중단 민족자주 결의 대회' 열다. 한상열(통일연대), 정광훈(민중연대), 김규철(범민련), 양기환(WTO 공동행동) 대표 등 결의 발언이 있었고 덕성여대 김정선 총학생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종묘공원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서울지역 청년학생연대(준)결의대회를 열다. 대회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 한반도 핵전쟁을 음모분쇄 여중생 살인미군 철수, 민족공조로 자주평화 실현 등을 결의하다. 마치고 광화문까지 행진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 함께함.

인사동에서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열고, 소모임 별 사업 활동과 계획 등 논의하다. 노혁, 장재영, 이승미, 송창학, 변의숙, 김미성, 이득형, 권오현 함께.

이른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던 스텔스 전폭기등 미군중원 전력이 훈련이 끝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다. 잔류하고 있는 중원 전력으로는 F-117A 스텔스 전폭기 6대 F-15E 전투기 10여대 육군기갑부대 등이다.

11 건국대 학생회관 2층중앙당에서 민혁당 대책위 주최로 '석방자 환영대회 및 양심수 이석기씨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도보 순례단 재출정식'이 열리다. 민중의례에 이어 최진수 단장의 인사말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대표의 환영사 윤미진 서기상씨의 축하공연 하영옥, 임태

열, 박경순씨등 인사말과 하영옥씨의 출사표 글 낭독 등이 있었음. 이정태, 김민정회원 함께.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의 한국전쟁편 역사 강좌가 있었습니다.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함께 끝나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즈음한 뒤풀이도 함께 있었음.

12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 기금을 위한 민가협 장터가 서울대 대동계 기간 동안(5.12~19) 서울대에서 열렸음.

국가보안법으로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오셨던 재야한 학자이신 이문학회 대표 이구영 선생님 84회 생신을 맞아 이문학회회원들을 비롯한 평소 선생님을 존경해왔던 여러분들이 인사동 섬진강에서 선생님 생신상을 마련 축하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연세대 앞 수배자 가족모임 천막농성장에 최상진 경희대 학생처장과 백태승연세대 학생생처장 홍순훈 학생과장 김종규 학생주임 등이 방문하여 농성가족들을 격려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각 대학 학생처장들이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건의문을 정부에 전할 것이라고 말하다.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이 주관하는 2003년 천주교열사 합동추모미사가 열림. 문정현 신부님 주례 하유설 신부님등 다섯분의 공동집전으로 권운상, 기태훈, 박복실, 박승희, 박은중, 서로벨토, 신진수 유재관 이정심, 이승삼, 이정순, 이재호, 이태훈, 조성만, 최명인, 최태욱, 한희철 열사 등 추모미사 드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이스)의 세 주요영역과 일부 항목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 인권위는 삭제권고 항목이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권리와 이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반 된다고 밝힘.

13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6·13 1주기 추모대회 국민준비위원회 주최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전국 촛불대행진단 출정기자회견' 열다. 문정현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전국대행진단 공동대표단장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의 출정소감. 진관스님의 노무현대통령에 드리는 글 노수희 단장의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 낭독이 있었음. 대행진은 이날 서울을 떠난 성남·수원·오산·평택·광주·매항리·경산·대구·울산·진해·부산·원주·춘천·서울·인천·파주·임진각·문산·동두천·양주·의정부·서울로 돌아오게 됨.

11기 한총련(의장 정재욱)은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연세대 등 신촌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대학생 5월 축전(출범식)' 행사인 30일의 한총련출범 10돌 기념대회에 사회각계인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힘. 우대식대변인은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합법화 등 기자회견문 낭독.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SOFA 개정국민행동 등의 공동으로 주최하여 제44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합집회를 가짐. 먼저 조성만 열사 14주기 추모행사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관계정산을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전시작전 통재권 즉각 반환, 평택미군기지 시설확장 및 이전비용부담반대,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 등 요구.

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사무실 옥상에서 4·30 양심수 사면으로 석방된 강북을 지구당 박용진 위원장의 석방환영대회가 열림. 김현희, 이승미 회원과 함께 했고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 환영사 하다.

대법원 1부(주심배기원대법관)는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에 대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등 원심을 확정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북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 통일노선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며 그러한 활동을 고무·찬양,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단한다고 밝힘.

14 '후원회 소식' 139호 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기다. 이승미, 김미성 애송.

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주화 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등 행사계획 토의하고 식당으로 옮겨 계승연대 후원주점을 열다. 유가협 강민조 회장의 인사말과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축사,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변정수 위원장의 축사를 위원회 심의위원이 대신 읽는 등 사회단체 인사 등 참여함.

단국대에서 법사회학회 주관하는 국가보안법, 양심수, 정치수배 문제 등 인권강연을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가 초청 받아 하다. 이어 학생회관에서 있는 한총련 합법화 정치수배해제의 밤 행사에서 격려 말 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학생들과 수배학생들 모두가나와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 절박성을 고조시키다.

15 서울지법합의 23부는 10기 한총련 대변인이며 의장 권한대행이었던 2002년 홍익대 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1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를 적용하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이적단체임을 설득할 아무런 논리도 펴지 못한 채 양심을 저버릴 정치관결을 하다. 가족과 학생등 방청인들은 법원 계단에서 규탄시간 갖고 대응조치 논의하다.

서울대 민가협 장터에서 민가협 471회 목요일집회 열다. 김종식 어머니 안옥희님 사회로 임기란 전 회장의 여는 말, 박용진씨의 출소인사말, 강순정 선생 발언, 권오현의 김형주 한총련 10기 의장과 윤경희 10대변인의 재판 결과에 대한 규탄발언 등.

김홍현 전빈련의장이 14일 집시법등 위반혐의로 강제연행되어 중부경찰서로 면회를 가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와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권오현 후원회장이 전빈련 대표단과 함께 면회하고 경찰당국에 즉각 석방촉구 하다.

한양대에서 한총련 주최 통일연대 후원으로 2003년 민족민주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다. 사회단체 원로 100여명이 초청되어 한총련 학생들이 준비한 소박한 음식물과 선물을 받다.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 사회로 이용훈 조국통일위원장과 전상봉 한청의장의 인사말, 임방규, 오종렬, 라창순 의장의 덕담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100,000원의 후원금 분담을 했음.

양심수후원회 이정규, 한상권 운영위원과 후원회원들 민가협 유가협이 열고 있는 서울대 장터 격려방문, 양심수후원회의 격려금 드리다. 노혁, 송창학, 주경임, 변의숙, 유선화, 김숙희, 김민정, 한수정, 김미성, 이용준, 주경희, 고광희, 지수, 송인석, 송인영, 권오현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여 대북강경정책의 미국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정책도 북핵문제와 연계하는 등 친미 굴욕외교를 나타내고 있음.

연세대 정문앞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촛불집회에 송창학, 유선화, 이승미, 노혁, 주경임, 이창희, 김민정, 김숙희, 이봉주 회원 참석 했음.

16 연세대 정문 앞 정치수배가족 천막 농성장에서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5개 교육관련 단체들 공동으로 한총련 수배해제를 위한 교육단체들 공동기자회견 열다. 김수정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집행위원장 사회로 황상의 교수 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낭독 유명업 수배자 모임대표의 감사의 말, 한상권 교수 등 수배해제 촉구 발언이 있었음.

☞ 오후 5시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촉구 제120차 촛불시위와 거리 문화제를 수배학생가족과 사회단체 대표 청년학생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심수후원회 김숙희회원 사회로 진행되다. 권오현, 정광훈, 최규엽 대표등의 수배해제 촉구발언, 박준씨의 노래공연, 학생들의 노래와 율동, 각종 문예 공연과 시낭송, 영상물 상영, 소원굿 등이 있었음.

☞ 한국의국어대학 본관 2층 홍보실에서 이대학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박재우 학생지원처장 용인캠퍼스 김성복 학생처장이상회 법대학장 이영학 교수, 박수영 교수, 반영률교수, 채희택 교수 등이 참여했음.

☞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들과 인권·종교단체 대표들은 법무부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용기 있는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 검찰3과 직원에게 전달하다.

☞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대법원정문 앞에서 김형주 10기 의장과 윤경희 대변인의 부당한 이적단체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하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호장 최병모)은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법무부와 대검, 청와대 및 각 정당 대표들에게 보냈다고 밝힘. 민변은 제안서에서 '한총련 가입 협의만으로 수배된 학생들을 불기소처분하고 다른 실정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한다는 원칙을 정부쪽에서 먼저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표명이 있으면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로 검찰조사 및 처분에 응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총련의 이적성문제는 기수별로 판단해야 함으로 출범을 앞둔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하지는 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다. 미국공영 PBS방송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무력(군사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의 말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 양심수후원회 139호 소식지 발송 작업이 있었음. 변의숙, 장재영, 이승미, 이봉주, 이진, 김미성, 고광희, 윤노숙(이봉주 회원 친구) 함께 함.

17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원불교 원암방송국의 WBS 일요스페셜 '박상환의 세상 읽기-광주 5·18민중항쟁의 올바른 계승방향'에 출연. 45분간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불평등한 한·미 관계 국가보안법의 반민족, 반인권성 한총련의 이적규정, 정치수배문제 등 부

당한 탄압에 대해 진행자와 대답하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정리와 한·미 공동성명 대한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자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사대외교라고 규탄하다.

☞ 성남공항에서 자통협, 평통사, 한총련 등 50여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강정구 교수, 이영훈 조동위원과 김승국 대표 등이 규탄발언. 소혜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광주 금남로에서는 5·18 민중항쟁 23주년 행사 위원회 주최로 '아이들의 소망을 위해 평화의 미소' 주제로 전야제 2만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김현선 북부 민주노동당 부위원장 사회로 강신석 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대화사와 문화공연 등이 있었음.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민족자주 반전평화 촛불 인간띠 잇기 대회'가 열렸고 이관복, 이혁희 경기민청의장, 박재익 서총련의장 등 투쟁 결의 발언이 있었음.

☞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연세대 정문에 모여 승합차로 광주민중항쟁 23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로 떠남. 오후 10시 금남로에 도착 전야제에 함께했고 광주전남 양심수후원회원들과 조선대학교로 이동, 후원회 활동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뒤돌아볼 했음. 이득형, 장재영, 이용준,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변의숙, 김현희, 김미성, 신현익, 권오현 함께.

☞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서총련 평양시학생위원회 공동주최로 '6·15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하고 6·13 여중생 1주기 공동추모모임과 6·15 민족통일 대추전을 추진하기 위한 서총련 추진 위원회 결성식'가짐. 서총련 박재익 의장이 결성 선언문 낭독. 조동위원장 김성훈 광운대 학생회장이 공동투쟁결의문 낭독하다. 이어 5.17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날 행사.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 SOFA 전면개정과 용산기지 등 모든 미군기지를 투쟁으로 되찾을 것을 결의하다.

☞ 139호 소식지 국내 1,201통, 국제 17통 발송하다. 송창학, 김미성 애씀.

18 양심수후원회원들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을 면회했음. 김미성 간사는 조선대 김영천 학생을 김현희, 신현익 회원은 전남대 민기체 학생을 장재영회원은 조선대 윤기환 학생을 이득형, 변의숙 회원은 전남대 이은미 학생을 송창학 간사, 이용준회원은 전남대 박미라 학생을 권오현은 10기 한총련의장(전남대) 김형주 학생을 각각 면회했음. 면회를 마친 다음 망월동 5·18

국립묘지로 열사들 묘소를 참배했고 별도로 김남주 시인과 비전향장기수 윤기남 선생묘 참배도 했음. 이어 금남로에서 있는 5·18민중항쟁 23주년 국민대회에 함께 했고, 계획했던 대구, 대전, 광주, 서울지역 양심수후원회 합동모임은 시간이 엇갈려 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 왔음.

☞ 도청앞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전민특위와 여중생 범대위 공동주최로 미군범죄 증언대회가 열림. 이산 전민특위 광주·전남 조사단장사회로 라창순 범남본 의장의 대회사, 이교순(73세-대전유성구)씨의 증언, 23년전 주한미군 하사관이었던 앨런 바필드씨의 80년 광주학살 증언 등이 있었고故전동씨 아들 전인수씨와 미선·효순이 어머니들도 함께 했음.

☞ 같은 장소에서 전국민중연대(준)와 광주·전남 민중연대 공동으로 '5·18 민중항쟁 23주년 국민대회'가 '저지! 신자유주의 강화! 민중연대' 등 주제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저자세의교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 정광훈의장의 대회사, 김정길 광주·전남 민중연대 대표의 환영사, 오종렬, 단병호, 차봉천(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씨등 정치연설,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의 결의문낭독 등이 있었음. 결의문에서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쌀개방저지, 교육, 의료, WTO 개방저지, 경제자유구역저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보장 한반도 전쟁위협 저지, 노무현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 민중연대 강화 등을 주장했음.

☞ 5·18 광주민중항쟁 23돌을 맞아 5·18열사묘역을 찾은 한총련 소속 등 학생과 일부사회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5·18묘역에서의 행사 참가에 맞춰 대미굴욕외교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제재로 묘역입구가 막혀 노무현 대통령이 후문으로 들어가고 행사 18분 늦게 진행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방미기간 발언, 대미저자세와 굴욕적 태도는 학생들 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학생들이 굴욕외교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적 분노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의 과잉방어와 원천봉쇄 작전으로 길이 막힌 것을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 한총련 학생들의 노무현대통령 대미저자세 외교와 관련 5·18 묘역입구 피켓시위에 대해 공안당국이 주동자, 엄단보도가 있는 가운데 서울로 올라오는 차안에서 '오마이 뉴스'와 전화인터뷰 하다. 학생들의 피켓시위는 국민적 분노의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계기로 한

총련 탄압에 구실로 삼으려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답변. 또한 경찰의 과잉 제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한총련의 계획적 행사방해로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답변하다.(권오현)

19 향린교회에서 홍근수 목사(양심수후원회지도위원)회고록 및 퇴임기념문집 출판기념회 열다. 1부 홍근수 목사 기념 강연회 '예수와 경제문제'가 있었고 2부에서는 김태준 교수, 이해진 목사, 사회로 출판기념회의 순서, 손규태 교수의 서평, 축하(박경장), 축사(법타, 문정현), 회고록증정(김귀옥, 백명철 교수), 축시(이기형) 등으로 진행되다.

☞ 5·18 묘역에서의 한총련 학생들의 대미굴욕외교 피켓시위와 관련 정부당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안당국도 정재욱 한총련 의장 등 간부와 공무원노조 간부 등 16명에 대해 비이성적 표현을 쓰고 있으며 강범무, 김두권 행자부장관도 관련자 엄단을 말하고 있다.

☞ 한총련 정재욱 의장은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행사를 방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다만 대미 굴욕외교를 피켓시위로 항의하려 했다고 밝히고 우발적 사태로 행사가 지연되어 5·18영령들의 유가족에는 죄송함을 표했음.

20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아침 6시10분 TBC 교통방송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5·18 묘역에서의 한총련 피켓시위는 대통령의 대미굴욕외교에서 비롯된 국민적 분노의 표현으로 경찰의 과잉제지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태를 공안당국이 사법처리 하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이번 사태와 우발적 사태를 공안당국이 사법처리 하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이번 사태와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통일연대와 여중생 범대위 민중연대(준) 공동주최 '자주·평화 민족단합의 열망을 무시한 대미굴욕외교와 비이성적 탄압을 규탄 한다.'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인사말,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의 경과보고, 민주노동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질의응답에서 권오현 대표는 5·18 행사장에서의 우발적 사태를 '난동으로 표현하며 사법처리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감정대응이며 이번사태와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답변.

☞ 전남지방 경찰청은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의장 등 2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다. 또한 한총련 대학생 8명, 전국 공무원노조 13명, 민주노동 노조원 2

명, 여중생 범대위 등 3명 모두 26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다.

- ☞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노무현대통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5·18 피켓시위의 목적은 대미 굴욕외교에 대한 한총련 학생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지 행사자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 라고 말한다.

21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민중연대 창립 대표자 회의와 출범식을 갖다. 박석은 집행위원장 사회로 민중 의례 경과보고 내·외빈 소개에 이어 정광훈 상임의장의 출범사, 이오수경의 축사, 지역대표인사,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음.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사무총장이 함께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행사 모두 마침.

- ☞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며 삼보일배(三歩一拜) 고행을 55일째 해오던 불교환경연대 수경스님이 서울을 눈앞에 두고 기진하여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다. 수경스님은 곧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은 뒤 강북 삼성병원으로 다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음.

- ☞ 광주 지방법원은 5·18기념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이 신청한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로 밝힘.

- ☞ 양심수 후원회 시사모임이 연세대 민들레 영토에서 있었음. 정운성, 이용준, 송창학, 한수정, 이창희, 김미성 함께.

22 전국민중연대로 청와대입구 청운동에서 노무현 정부 대미굴욕외교와 한총련 및 노동사회 단체 탄압 규탄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

- ☞ 청운동에서 'NEIS' 반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전교조 지도부들의 농성장 격려방문하다.

- ☞ 민가협 472회 목요집회 정치수배가족들 사례발표와 박제민군 어머니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 발언.

- ☞ 단국대 대동계 기간 법사회학회가 열고 있는 양심수를 위한 후원주점(5.21-23)에 격려방문하다. 단국대 법사회학회는 양심수후원회와 10여 년간 연대 사업을 해오고 있었음. 송창학, 주경임, 유선화, 이창희, 권오현 함께.

-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주최로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리다. 최병모 민변회장(공대위 공동대표)인사말에 이어 장유식 변호사 사회로 유혜정(인권운동사랑방)의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대안, 박찬운 변호사의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한영수 경원대교수의 외국의 보호

감호제도 등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23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돈암동 한상권교수연구실에서 열다. 4월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백만원 변제 문제와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문제 등 재정 문제 등 논의하다.

-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투쟁 86일을 맞고 있는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쟁취투쟁 본부가 주최하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완전쟁취를 위한 전국유족 및 사회단체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결의문 등을 국회의원회에 전달하다. 이이화 상임대표, 김원웅 의원, 임광빈 목사, 천영세 부대표 등 결의 발언.

- ☞ 범남본 전국연합 등 민족민주운동 6개 단체 합동사무실 개소식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있었음.

- ☞ 서울시립대 대동계 기간 양심수를 위한 후원 주점을 시립대 법정대에서 벌여 양심수후원회에서 격려 방문하다. 이득형, 양계숙, 변의숙, 안나미, 송창학, 정인태, 김숙희, 김민정, 박지윤, 권오현 등 함께.

- ☞ 남과 북은 평양에서 제5차 남북(북남)경제 협력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6·15 공동선언 3주년이 되는 6월 10일경 경의선, 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 행사를 하고 6월 하순에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갖기로 하는 등 7개 항에 대한 공동보도문 발표하다.

24 여중생 범대위,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공동으로 '친미 굴욕외교 한총련 노동·사회단체 탄압, 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요도 규탄대회'를 올지로 5가 혼련된 공원에서 열다. 정광훈, 김선분, 정지윤, 이용훈 등 규탄 발언 같은 자리에서 '한·미 수구 냉전세력 척결을 위한 애국학생연대 주최로 특검 즉각 중단, 굴욕적 방미규탄, 6·15 민족공조 실천을 위한 청년 학생 결의 대회'를 열다. 마치고 명동 외환은행까지 거리 행진.

- ☞ 경찰청 부근에서 서총련 주최로 '5·18 시위관련 강경대응 규탄 서총련 기자회견'을 열다. 고려대 공대 학생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윤한탁, 유선희 등 규탄 발언.

- ☞ 서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2년 고려대 정보통신대학 이과대학생회장 조혜영 학생을 학교부근에서 강제 연행하고 성북경찰서에 감금. 고려대학생 등 50여명 성북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 학생대표 3명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과 수배학생 어머니 등 6명이 조혜영 학생 면회하고 경찰당국에 즉각 석방촉구 하다. 이날 새벽 경희대 오경만 학생과 대구교대 황의신 학생(모두 수배학생)도 경찰에 강제 연행 조사를 받고 있음.

-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사대굴

육외교 노무현 정권 규탄! 한반도 전쟁위협반대! SOFA 전면개정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 및 10만 준비위원 모집 중간보고 대회 열다. 강성훈 실천단 집행위원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여는 말, 금천청년회 박정훈씨 발언, 6·13 추모 문예단의 퍼포먼스 등 문화 공연 등 진행.

- 25 양심수후원회 5월 산행의 날. 모두 16명이 '낙성대 역'에 모여 낙성대 능선-사당능선 까지 오름. 소개시간과 시사모임주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굴육외교, 시사문제 등 토론' 하고 산을 내려오다. 후원회 김진화 회원이 운영하는 '시골집'에서 점심점 뒤돌이를 하다. 김수룡, 류기진, 안학섭, 이해경, 김교영, 송세영, 한상권, 송창학, 이창희, 이득형, 양계숙, 하영옥, 하혁준, 김장일, 권오현 함께.

☞ 한총련 수배자 가족모임은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여 수배학생연행에 강력 항의하는 서한 전달.

☞ 서총련은 고려대 학생회관 4층에서 서총련 사무실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촉구하다.

- 27 한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법정(가) 추진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사회로 오종렬 의장 인사말, 한상열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심재환 변호사 설명, 제안에서는 정전협정 50돌을 맞는 7월 27일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반전평화 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법정을 열고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 했음.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대표와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지회는 한상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진상규명 위원회 2기 출범을 축하하고 조사관 공채에 있어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진상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배려할 것 권고하다. 오종렬, 권오현 대표와 허영춘 지회장들 함께.

☞ 신길동 통일연대 사무실에서 제1회 6·15 통일 마라톤 대회 추진 대표자 회의 열다. 참가 단체 확인과 경과보고가 있는 뒤 6·15 통일마라톤 대회조직위원회 결성 조직위원장에 명진 스님과 한상열 통일 연대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에 이규재 범법본 부위원장 선임.

☞ 인사동 부산식당에서 양심수후원회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회 열다. 139호 평가와 140호 편집 기획등 토의. 이승미, 하재광, 박정범, 김미성, 오영순, 김현희, 이창희, 이진, 권오현 함께.

☞ (사)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은 8회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합의해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결정. 11기 한총련 학원지주와 추진위원회 허환희 위원장과 이영훈 조통위원장 등은 정부종합청사로 교육인적자원을 방문 5.30~6.1까지 진행될 11기 한총련 '5월 추진' 초청장을 전달.

- 28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560차 수요집회를 열고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개서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도 열다. 정현백, 한상열 대표의 발언과 신혜수 정대협 대표의 공개서한 낭독이 있었음.

29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전국민중연대 양심수후원회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한총련 합법화와 한국대학생 5월 추진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의장의 인사말, 권오현, 라창순, 오종렬 의장의 '5월 추진 평화적 개최 보장 촉구 발언. 한상열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향린교회에서 6·13 1주기 추모대회 자주·평화 실천 촛불대행진 국민 준비위원회 공동 준비위원장 회의를 열다. 활동보고에 이어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 기획안, 추모대회 예산안, 공동준비위원장, 고문 확인 추모기간 사업안 검토 등 논의 하다.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원암의 집'에 살고계신 출소 장기 구금 양심수 김경선 선생님이 28일 오전 3시 폐렴악화로 세상을 떠나시어 오늘 원암의 집 빈소를 찾아 문상을 했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 선생님이 빈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통일연대 한상열 목사님과 여성단체연합 이강실 목사, 권오현 함께 했음.

- 30 원암의 집에서 통일애국인사 김경선 선생 민족통일장례위원회 주관으로 민족통일장 영결식이 양진규 목사님 사회로 진행되었음. 민중의례에 이어 옥중동지 류락진 선생님이 고인의 약력 소개가 있었고 한상열 장례위원장의 추도사,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와 권오현 양심수 회장의조가 합창이 있는 다음 옥중동지들로부터 헌화가 있었음. 영결식을 마치고 원암의 집에서 마련한 꽃상여로 가까운 장지까지 운구했고, 원암의 집 뒷동산 이미 장기구금양심수로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故진태운 선생 등 묘소 옆에 통일광장 동지들의 오열 속에 묻히셨음. 이날 영결식에는 옥중동지로 허영철, 최공식, 김영식, 이성근 선생님을 비롯하여 강희남 목사님, 성공회 허종현 신부님, 완주군 농민회 여러분, 전북 통일연대 하연호, YWCA 구경희 회장, 청년단체 회원 등과 원

암의 집 백영규 원장님과 원생 등 60여명이 함께 했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모임과 민가협 회원들은 연세대 천막농성장에서 도보 행진하여 청와대 입구 청운동에서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가두시위 벌이다. 김성옥씨 등 수배가족대표 3명과 민가협의 임기란 전회장, 조순덕 상임의장, 권오현 공동의장 청와대 민원실에 가서 시민사회과 최종환 비서관에게 가족단원서 등을 전달하고 수배해제 촉구와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하다. 다시 가족들 가두시위장에 와서 전달 내용 등 보고(권오현)하고 가족들 연세대로 돌아옴.

✎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치수배자 모임이 주관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를 양심수후원회 고향회 회원사회로 열리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인사말과 '우리나라' 등 노래공연 한총련 학생들의 춤과 노래 등이 이어졌음.

✎ 한총련 출범 10돌 기념만찬이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들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연세대 '고를샘'에서 있었음. 만찬에서는 유영업 정치수배모임대표의 사회로 한총련 정재욱 의장의 모시는 말, 사회각계 원로들의 축하말이 있었음.

✎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한총련 학생 8000여명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총련 10돌 기념대회 및 11기 한총련 출범축하한마당'이 밤 9시30분부터 열리다. 전대협 전 동우회장 정명수씨 사회로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의 환영사 정재욱 11기 한총련의장의 인사말,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 송영길 의원의 축사, 권진원, 신동호, 가극단 금강, 희망새 등 축하공연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400여 대의원이 모두 무대에 올라와 인사와 합창이 있었고 우대식 대변인의 인사, 복기왕 전대협 동우회장, 정재욱 한총련 의장이 함께 나와 인사와 노래 등으로 마침. 이어 새벽까지 청년학생 통일한마당이 열렸음.

✎ 연세대 분수대 앞에서 정치수배자 모임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정치수배자 후원주점이 30~31일까지 열렸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영옥 지도위원을 비롯하여 김호현 운영위원, 왕준영, 안은현, 변의숙, 김범용, 이일규, 김숙희, 이창희, 김민정, 김미성, 김호, 고광희, 이봉주, 이득형, 양계숙, 이승미, 박지윤, 이진, 주경희, 심주이, 이용준, 안병길 목사님, 한찬욱 민족21사장, 권오현이 함께 했고, 구로 청년회에서 이영주, 민애청의 은희, 현대백화점 노조원 3명, 우리나라 조상회 회원들

이 일손이 되어 주었음. 감사합니다.

31 경원대에서 대동제 시설정리를 하고 있던 2002년 경원대 총학생회장이며 경인총련의장이었던 김진환 학생이 의정부 보안수사대에 의해 불법 강제 연행되어 수원 보안수사대 옮겨 조사하고 있음. 이에 경원대 등 경인총련 대학생 90여명이 항의 집회와 면회투쟁을 하다.

✎ 용산 미8군사령부 5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 기지 반환운동본부와 한총련 학생 500여명은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 평택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대체부지이전비용 한국부담반대'등을 촉구하는 월례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월포워즈 미국방부 부장관 반한반대와 4일부터 열리는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를 앞두고 자주 국방 정책을 촉구했음.

✎ 광화문 종로거리에서 한총련소속 학생과 시민등 1만여명이 모인가운데 187차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리다. 먼저 조정원 경원대 총학생회장 사회로 '신 자유주의 반대, 미국반대, 한반도전쟁위협 반대,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전국학생투쟁연대(준) 발족식을 갖다.' '우리하나 되어' 등 율동과 노래공연에 이어 정재욱 한총련 의장, 주향미 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 김지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공동선언문을 함께 읽었고 이어 이승환 민주노동당 통일국장 사회로 '6·13 1주기 추모대회 성사 및 자주·평화 결의대회를 열다. 오종렬 의장의 대회사, 민족자주 반전평화 촛불대행진단 공동단장(노수희, 이규재, 진관) 인사말과 보고, 이관복 대표의 발언 등으로 이어 졌음. 2부 순서는 9시부터 허환희 한총련 11기 학자추위원장 사회로 '행동하는 젊음, 반전평화 open space 한마당'이 열리다. 한총련 학생 마치고 연세대로 돌아와 출범식 준비하다.

✎ 정치수배자들을 위한 후원주점에 31일에도 많은 회원이 밤을 새워 열었습니다. 김영옥, 황남수, 한수정, 이상희, 주경임, 노혁, 송창학, 김민정, 김미성, 김숙희, 김범용, 이창희, 변의숙, 이승미, 이득형, 이진, 박지윤, 이일규, 안은현, 김현희, 이용준, 고광희, 김호, 심주이, 이봉주, 김호현 구로시민센터 홍상희, 김선미, 홍은경, 민애청 은희, 아이들 이석, 인영, 준영, 찬영, 태연, 주리, 시은, 솔(생후 2개월)과 권오현 등 함께

✎ 회원관리팀 모임이 정치수배 후원주점에서 산행, 인터넷 신입회원 연락 작업과 회원관리카드 재정리 문제 등으로 논의하다. 노혁, 변의숙, 김숙희, 김미성

✎ 양심수 25명에 영치금 2만원씩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0,000 보냄.